

이주노동자의 우울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탐색적 연구: 제조업 미얀마남성이주노동자의 경우*

윤영삼
부경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이정식
부경대학교 경영컨설팅협동과정 박사과정

WeiWei Khine
부경대학교 경영학과 박사과정

A Exploratory Study on the Factor Affecting the Depression of Immigrant Labor: The Case of Myanmar Male Immigrant Labor

Yeong-Sam Yun^a, Jeong-Sik Lee^b, Wei-Wei Khine^c

^aDivision of Business Administration, Pukyong National University, South Korea

^bDepartment of Business Consulting, Pukyong National University, South Korea

^cDepartment of Business Administration, Pukyong National University, South Korea

Received 30 November 2021, Revised 20 December 2021, Accepted 23 December 2021

Abstract

Purpose - This paper analyzes the effect of factors affecting the depression of immigrant labor by the exploratory multivariate model empirically.

Design/Methodology/Approach - We review results of precedent studies theoretically and implement empirical study by using the questionnaire data of Myanmar male immigrant labor.

Findings - As the result of empirical study, the factor affecting the depression of immigrant labor significantly at $p < 0.5$ level are 'interpersonal trouble in company', 'unjust wage' and 'bottleneck to life'. Also 'unjust treatment' and 'anxiety(of health)' are affecting factors significantly at $p < 0.1$.

Research Implications - Managerial implications are as follow. Firstly, employers have to reduce 'interpersonal trouble in company', 'unjust wage' and 'unjust treatment'. Secondly, government have to support to reduce 'bottleneck to life' and 'anxiety(of health)'. Academic implications are as follow. Firstly, factors that are studied exploratively have to be tested by systematic empirical study. Secondly, which of short-term, lagged or cumulative is the nature of the affecting effect and the reciprocal relationship between depression and factors affecting the depression has to be studied empirically.

Keywords: Depression, Immigrant, Labor, Myanmar

JEL Classifications: I19, J61, M14

* 이 논문은 부경대학교의 자율창의기술연구비(2020년)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a First Author, E-mail: ysyun@pknu.ac.kr

^b Corresponding Author, E-mail: dohyun0645@naver.com

^c Co-Author, E-mail: weiwei35@naver.com

© 2021 The Institute of Management and Economy Research, All rights reserved.

I. 서론

이주민이 많은 국가가 된 한국에서 이주민의 상당수는 고용허가제를 통한 이주노동자인데, 이들이 없으면 중소기업의 운영이 불가능할 실정이라서 이들의 상태는 기업과 사회가 관심을 가져야 할 중요한 사항이다. 그동안 문화적응에 관한 연구들이 많았으나, 특히 이주노동자의 심리적 상태 나아가 정신건강에 대한 연구는 적은 편이다.

장기불황(depression)과 신자유주의라는 정책기조에 의해 노동환경과 생활환경이 악화되어 한국사회에서 우울증(depression¹⁾)이 많다²⁾(심광현, 2014)고 제시되어 온 가운데, 한국에서의 (등록)이주노동자에 있어서 정신건강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오래전부터 지적되어 왔다.(김용규, 2010) 구체적으로 이주노동자의 정신건강상태(전체심도지수)가 치료를 요하는 비율은 13.4%이었고 우울로 인해 치료를 요하는 비율은 8%(양옥경·박향경·손가현, 2010)이었으며 우울증상율은 32.1%³⁾(이선웅, 2008)와 36.9%(김지경, 2012)이었다.

이러함에도 노동자 일반의 우울증에 대한 체계적 연구가 적어서 사측이 노동자의 우울증문제에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가 아직 명확하지 않다. 우울증은 노동자의 업무의욕상실, 업무불만족 및 정서적 갈등 등에 따른 능력·기능저하를 야기하여 회사에 손해와 결근 그리고 질병휴가를 증가시키고, 생산성과 수익을 하락하게 하는 직간접비용을 야기한다고 제시되었으나(Kim et al., 2009; Rost et al., 2014) 조직행동론 등에서 우울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특히 회사내요인들에 대해서 연구가 별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노동자의 우울감에 영향을 미치는 회사내요인들을 비롯해 회사밖요인들까지 연구가 필요하다. 나아가 우울감에 관한 경험적 선행연구들에서도 복수의 요인들을 동시에 포함한 복수요인모델(multivariate model)로 연구한 것은 별로 없다.(Pemberton and Fuller Tyszkiewicz, 2016)

이상의 문제의식을 토대로 본 연구는 이주노동자의 우울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복수요인모델로 실증연구를 통해 탐색적으로 규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는 우울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선행연구들이 제시한 요인들 외에도 이주노동자의 열악하다고 제시된 회사내 및 회사밖 실태와 관련된 요인들을 포함하여 이들의 영향을 탐색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의학에서 구분짓는 정신병적 우울감과 비정신병적·신경증적 우울감 중 회사생활이 가능해 회사생활을 하고 있는 이주노동자에 대해 연구하는 것이어서 후자에 한정하여 연구한다. 실증연구대상은 미안마출신 이주노동자 중 남성에 한정하는데, 미안마당국이 여성에게는 고용허가제에 따른 이주노동자로 허가하지 않기 때문이다.

본 연구의 방법은 개념적 연구방법과 경험적 연구방법을 병행하되, 주로 경험적 연구를 통해 연구목적 달성과자 한다. 개념적 연구는 관련문헌들을 검토하여 우울감의 개념을 정리하고 선행연구와 이주노동자의 실태에 대한 문헌적 검토를 통해 우울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살펴보는 것이다. 경험적 연구는 이론적 배경을 토대로 설문조사를 통해 우울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탐색하는 실증연구이다.

이 연구가 수행된다면 이주노동자의 우울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규명해 요인을 개선함으로써 이주노동자의 우울감을 감소시키거나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1) 우울증은 melancholia로 불리다 원인을 나타내는 용어인 depression으로 통용하게 되었다.(Solomon, 2001) depression이 경제학에서는 경기저하 즉 불황이라는 뜻으로 통용되고 있는데, 경제와 심리의 연관성을 보여주고 있다.

2) 한국은 OECD 통계에서도 2020년 우울증 유병률이 36.8%로 OECD 회원국 가운데 1위이다. 우울증과 관련이 높은 자살률도 1위이다. 우울증인 사실을 모르거나 알고도 병원을 찾지 않는 사람까지 합하면, 우울증 환자가 1,000만 명에 이른다고 전문가들은 추산하지만, 우울증 예방이나 치료에 대한 관심은 적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경제적 불안이나 실업 등 정신건강의 위험요소는 늘어난 반면에, 이를 상쇄하는 사회적 교류나 교육·운동의 기회 등 일상이 사라진 탓에 우울증과 불안증으로 병원 치료를 받은 환자가 2배 이상 증가했다.(노진섭, 2021) 코로나19 국면이 장기화되면서 최근에는 '코로나 블루'라는 우울과 불안이 분노로 표출되는 '코로나 레드'도 나타나고 있어서 체계적인 심리방역 지원이 필요하다.(반기용, 2021)

3) 조선족이주노동자와 미등록이주노동자(우울증상율 32.8%)를 제외한 것이며 당시의 국내 일반인구집단과 비슷한 수준이나 국내 노동자 집단에 비해 높은 수준이라고 제시하였다.

II. 이론적 배경

1. 우울감: 신경증적 우울증

우울은 인간 본연의 구성적 속성인 슬픔(sadness)이라는 정동의 변종(Solomon, 2001)이다. 우리의 현대성 속에서는, 행복/기쁨이 긍정심리로 규정되는 것과 대비되게, 슬픔이 부정적 심리(질병)(dis-ease/불-편함)로 규정⁴⁾되고 있어서 슬픔에 경계선을 그어 과도한 부정적 심리를 우울증(depressive symptom/disorder)이라고 지칭하면서 정신병으로 취급하고 있다.⁵⁾ 우울이라는 부정적 정동·기분·행동은 침울한 기분이라는 비교적 경미한 정도부터 세상에 대해 부정적 생각과 효율적으로 기능을 할 수 없는 정도까지 다양한데, 우울증은 판별하는 경계선이 분명하지 않으며(Hamon and Gaspard, 2020), 과도한 부정적 심리로서의 우울은 크게 정신병적(psychotic) 우울(Melancholia가 이에 속함)과 신경증적(neurotic) 우울로 구분된다. 그러나 우울증이라는 용어는 다양한 유형과 스펙트럼에 걸쳐 있는 '정신현상'을 지칭하지만, 정신병적 우울과 신경증적 우울이라는 구분을 지워버리기도 한다.(Olive, 2020)⁶⁾

우울감(depressive mood, depressive feeling)/신경증적 우울이 한 종류인 우울증은 오랜 연구역사를 갖고 있어서 다양한 관점들이 제시되었는데, 크게 정신분석적 관점과 정신의학적 관점으로 구분되어 왔다.

정신분석적 관점은 Freud에 의해 창시되었는데, 그는 본능/자아/초자아로 구성된 심리의 의식과 무의식이라는 틀을 토대로 모든 정신병리에 구조적 분석을 제공하였다. 이를 토대로 우울과 관련하여 우울한 증상을 경험하는 주체를 비롯한 무의식의 주체(고유한 특이성을 가진 주체와 욕망)를 소환하려 하며, 우울이 욕망에 관한 어떤 진실을 드러내는지에 대해 집중분석하였다. 정신병적 우울(Melancholia)을 다른 우울장애/신경증적 우울과 구조적으로 구별되지 않는 하나의 질병단계로 보고 증증도를 측정하는 척도상에 두고서 가장 고도로 심한 중증 우울증이라고 인식하는 정신의학적 관점과 달리 정신분석적 관점은 정신병적 우울을 다른 우울장애/신경증적 우울과 구조적으로 구별되는 것이며 단순히 주요 우울증의 심각한 유형이 아니라고 구조적으로 분석한다. 나아가 정신병적 우울과 신경증적 우울은 구조적 특성에 따라 각기 다른 현상과 증상들을 나타낸다. 정신분석적 관점을 크게 발전시킨 Lacan은 신경증적 우울증(욕망을 포기한 신경증적 주체의 도덕적 비검함과 결함)과 멜랑콜리릭 정신병(아버지-의-이름의 폐제 때문에 무의식이 거절됨)을 구분해 내길 권유하면서 우울을 삶의 전반에 걸쳐 나타나는 보편적으로 경험되는 신경증이고 신경증은 욕망이 고장 난 것이며, 우울은 주체가 문명 앞에서 스스로에게 부과한 의무들에 대해 만들어내는 정동이며, 주체의 이상이 높을수록 그리고 만족을 대체할 것들을 찾지 못할수록 심해진다고 제시하였다. 또한 욕망관련 거세에 대한 주체의 위치와 연관되어 매우 다양한 방식의 주체 경험 속에 나타나는 복합적인 현상들 즉 신경증적 우울 현상을 드러낸다고 제시하였다. 신경증적 우울 현상으로 Taylor and Fink(2006)는 '전반적이고 그치지 않는 걱정과 침울, 그 결과 초래되는 흥미 상실, 집중력 감소, 기억력 저하, 사고력 저하, 실패감과 낮은 자존심, 그리고 자살에 대한 생각'이라는 기분의 핵심병리들을 들고 있다. 정신병적 우울 현상으로 공포증, 강박증, 히스테리, 욕망하지 못함 그리고 이러한 구조를 바탕으로 변주된 증상으로서 고립(사회로부터 자신을 괴리시킴), 히스테리릭 권태 혹은 귀찮음, 강박적 의기소침 등을 들 수 있다.(박시성, 2020) 정신분석적 관점의 임상은 우울한 주체를 욕망하는 주체로 이끄는 담론을 포함하며 이 담론은 주체의 욕망의 윤리와 욕망에 따른 행위를 수반하는 새로운 윤리를 따르는 것과 관련된 도덕적 복원을 향한다.(Blatt, 1998)⁷⁾

4) Hamon and Gaspard (2020)는 항우울제 판매가 성공한 것을 들면서 현대성 속에서는 슬픔에 대한 권리가 사실상 금지되어 있다고 제시하였다.

5) '정신병'이라는 개념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정상적'이지 않다고 보는 심리, 신념 및 행동을 가진 사람들을 분류하고 통제하는 데 자주 사용되어 왔다. '정상적인' 사람들을 '일탈적인' 사람으로 정신과 의사가 분류하려 한다고 주장하는 '반정신의학'운동도 있다. 이들은 정신과 치료가 궁극적으로 환자에게 도움이 되는 것보다 더 해롭다고 주장하기도 하였다.

6) 우울증과 관련된 개념들이 있는데 미국정신과협회가 한국인의 독특한 스트레스성 질환이라고 1996년 공인한 화병(Hwa-byung: a disease caused by pent-up rage)(민성길, 2009)과 한(Hahn)(김종주·이만우, 2000) 그리고 기(氣)죽음으로도 표현되는 낙담(discouragement)(Lassus et al., 2015)을 들 수 있다.

7) 심리학의 한 학파인 인본주의도 우울증이 사회와 자아실현 또는 자신의 잠재력을 최대한 실현하려는 개인의 타고난 욕구 사이의 불일

정신의학적 관점은 사람들이 ‘정상적’이지 않다고 보는 (우울관련)증상들(의 분류와 통제)에 초점을 두며, 최소수준에서 심각수준까지의 단일한 스펙트럼(척도)상의 다양한 (우울관련)증상들⁸⁾을 같은 기저상태의 발현으로 본다.⁹⁾ 우울증은 부정적 생활사건에 의해서 발생하거나 이와 연관되어 있다고 보며, ‘생체심리사회적 모델’이 대표하듯이, (우울관련)정신/심리장애는 다요소적 성격을 갖고 있다고 본다. 연구초점을 두는 요소에 따라 생물학, 후생유전학, 진화론, 인지론, 행동론에 기반한 다양한 접근법들을 포함하고 있다.¹⁰⁾

정신의학적 관점에서 우울증은 생물학적 상태로 간주되는 내인성이거나 스트레스성 사건에 대한 반응인 반응성인데, 단일모델은 심각성과 ‘심리생물학적 결정적 공통경로’를 그리고 이원모델은 ‘생물학적 우울증 증후군’과 ‘반응성 우울증 증후군’의 구분을 개념화했지만, 단일모델 또는 이원모델이 증후군의 진정한 반영인지 여부는 해결되지 못했다.

정신의학적 관점은 정신장애를 진단하는 도구로서 이론과 연관된 것(질병분류)이 아니라 정신장애의 증상중심적인 기술을 근거로 선별하여 단일스펙트럼모델에 근거한 증증도를 구분하는 체크리스트를 사용하고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DSM(Diagnosis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s)이다.¹¹⁾ DSM은 우울을 주요우울장애(major depressive disorder), 기분부전장애(dysthymic disorder), 기타 우울장애로 구분한다. 우울측정법의 기본으로 설문법을 사용하는데, 우울척도의 점수에 따라 심한 우울, 중한 우울, 가벼운 우울, 거의 아닌 우울 수준으로 나뉜다. ‘가벼운 우울’과 ‘거의 아닌 우울’수준은 우울증과 관련된 증상을 보여도 일상생활 영위가 가능한 수준이라고 한다.

정신분석적 관점과 정신의학적 관점은 정신병리학의 사양에 대한 논쟁을 해결할 만큼 충분히 조화를 이루지 못한 상황인데, 본 연구는 이주노동자에 대해 집단적으로 일반화될 수 있는 요인을 탐색하는 것이므로 정신의학적 관점에 따라 수행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노동자를 대상으로 하므로 회사생활에 큰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정도의 우울증에 한정하여 연구하고자 하는데, 이 정도의 우울증/우울장애는 우울감(depressive mood/feeling)이라고 명명되며 연구가 이루어져 왔다.

우울감은 의욕 저하와 흥미나 즐거움의 상실 등을 주요 증상으로 하여 다양한 인지 및 정신·신체적 증상을 일으켜 일상기능의 저하를 가져오는 의학적 질환을 말한다(APA, 2000). DSM에서는 주요 우울증상의 약한 형태 즉 ‘가벼운 우울’로 간주되고 있는 것으로서, 정신병적 우울증(psychotic depression)에 동반되는 망상, 환각, 우울성혼미 등의 정신병적 증상을 동반하지 않으며(제용진·유승호, 1997) 역학적 측면, 치료반응 등에서 차이가 있는 비정신병적 우울증(nonpsychotic depression)이다. (<표 1> 참조)

치 특히 자아실현자에 대한 ‘동요함’ 또는 ‘전체성’을 사회가 배제함에서 비롯되었다고 주장했다.(Maslow, 1967)

- 8) 1800년대 초부터 정신질환의 범주를 질병 수준의 망상이나 비합리성 외에도 기분장애를 포함하도록 확장하였으며, 정신분석적 관점에서 중시된 멜랑콜리아를 melancholic subtype으로 통합시켰다.
- 9) 정신의학적 관점/질병기술학적 관점은 임상현장에서 주로 사용되고 있는데, 매우 산만하지만, 매우 광범위한 용어로서 우울증을 사용하고 있다. 서로 상이할 수 있는 정신/심리장애들을 같은 기저상태를 상정하여 같은 방식으로 치료한다. 심각한 우울증에만 권장되는 항우울제의 사용이 정도의 우울삽화에까지 확대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약물로 치료할 수 있는 뇌의 장애와 정신의 장애를 혼동한다면 정신의학이 의학의 아이디어에 너무 영향을 받아 정신적 고통의 본질을 오해하게 만든다는 비판이 있다.
- 10) 정신의학적 관점에는 중요한 하위접근법으로 다음의 2가지가 있다. 첫째, 생물학·생의학적 접근법은 정신장애들은 본질적으로 모두 생물학적 요인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하는데, 생물학적 요인은 새로운 개념의 ‘신경’으로 진화했으며 정신의학은 신경학과 신경정신과의 대략적인 근사치가 되었다. 우울증이 뇌의 신경전달물질의 화학적 불균형으로 인해 발생한다. 정신약리학과 신경화학에서 신경전달물질이 행동조절에 있어 여러 기능을 갖고 있음을 토대로 신경전달물질의 생산, 재흡수, 수용체의 밀도 및 위치의 개인차가 특정 정신질환에 대한 성향의 차이와 관련이 있다고 제시하였다. 둘째, 인지적 접근법은 생각, 추론 및 해석과 정보에 주의를 기울이고 기억하는 방식에 초점을 두어 우울증을 ‘부정적 정보의 정교화 증가, 부정적 내용과의 분리 어려움, 부정적 정보를 처리할 때 인지조절의 결핍’이라고 규정한다.(Gottlib and Joormann, 2010) 우울증이 역경의 시기에 부적절한 자기비난, 자기연민 또는 기타연민으로 이어지는 비합리적인 ‘해야 함’ 그리고 자신, 자신의 미래 및 세계에 대한 부정적 사고패턴의 ‘인지적 삼합체(triad)’ 또는 ‘스키마(schema)’에서 비롯된다고 주장한다.
- 11) DSM은 진단의 타당성과 신뢰성에 대한 문제제기, 질병과 ‘정상성’ 간의 구분기준의 임의성, 문화적 편향의 가능성, 인간적 괴로움의 의학화를 포함하는 논쟁과 비판에 휩싸여 있다.

표 1. 우울증과 우울감의 개념적 관계

구분		비고
심한(severe) 우울	정신병적(psychotic)	일상생활 곤란
중한(moderate) 우울	우울	
가벼운(mild) 우울	신경증적(nonpsychotic/neurotic)	우울감 (depressive mood)
거의 아닌(minimal) 우울	우울	

출처: 필자 작성

노동자의 회사생활관련 우울감은 Warr (1990)가 직무관련 우울감(job-related depressive mood)으로 제시한 적이 있다. 노동자의 우울은 만성피로, 두통, 위장질환 등 신체적 증상과 약물의 중독 등으로 인한 정신적 부작용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노동자의 업무의욕상실, 업무불만족 및 정서적 갈등 등에 따른 능력·기능저하를 야기하여 회사에 산재와 결근 그리고 병가를 증가시키고, 생산성과 수익을 하락하게 하는 직간접비용을 야기한다.(Kim et al., 2009; Rost et al., 2014)¹²⁾

2. 우울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선행연구결과를 중심으로

우울감의 요인을 설명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이론적 관점/모델들이 제시되어 왔다. Rosenthal의 diathesis(vulnerability)-stress model, Karasek의 demand-control model, Willner의 chronic (unpredictable) mild stress model 등을 들 수 있으나, 무엇이 우울증을 유발하는지 모른다는 것이 이론적 실태(Solomon, 2001)라고 보여진다.

경험적 연구결과들은 매우 많은데, 42개의 연구결과를 체계적으로 검토한 Pemberton and Fuller Tyszkiewicz (2016)는 우울감의 위험요인은 수면부족, 스트레스, 중요한 삶사건이었고 보호요인은 육체적 활동과 사회적 상호작용의 질이라고 제시하였다. 회사생활에서 우울감의 단기(near-future)발생/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meta분석을 실시한 Theorell 외(2015)는 직무 긴장(strain)(높은 심리적(직무)요구와 낮은 결정허용범위)과 괴롭힘이 강력한 요인이었으며, 노력과 보상 불균형, 호의가 없는 직장(인간관계)분위기, 절차/관계적 불공정, 상사/동료와 갈등, 제한된 기술재량, 직무/고용불안정 및 긴 노동시간, 낮은 (상사/동료)지원, 감정적 요구, 분배적 정의, 위협, 폭행, 불규칙한 노동시간, 긴 노동시간(남성), 신체적 요구, 위험물질 노출도 중요한 요인이라고 제시하였다.

이러한 우울요인들은 서구(의 노동문화)의 맥락에서 이루어진 연구결과라는 점에서, 문화에 따라 영향력 등이 다르다고 제시되었다.(Esteban et al., 2020) 또한 요인에 대한 노출의 시간(duration)과 강도(intensity)가 다르며(Netterström et al., 2008) 방법론적으로 공시적 연구들이 주로 이루어졌으나, 통시적 연구(de Lange et al., 2004; Shields, 2006)도 이루어졌다.

국내연구자들이 경험적으로 확인한 회사내 우울감요인¹³⁾은 직무스트레스, 노동강도, 작업수행의 어려움, 근무시간, 교대근무형태, 야간작업, 불평등/부정의/차별(인식), 부정적 대인관계, 직장내 폭력, 직장내 괴롭힘, 직장-가정 갈등, 고용불안, 사회적 (지원)관계망, 사회적 배제, 감정노동 등이다.

이외에 국외연구자들이 경험적으로 확인한 회사내관련 우울감요인은 직무통제(Karasek, 1990; De Lange et al., 2004), 팀분위기(Ylipaavalmi et al., 2005; Fandino-Losada et al., 2013), 고립긴장(isolated strain)(Clays et al., 2007), 함께노동(working with people)(Wieclaw et al., 2008), 업무상 갈등(Magnusson et al., 2009; Stoetzer et al., 2009), 심리사회적 계약위반(Priesemuth and Taylor,

12) 川上真史・小杉正太郎 (2004)는 회사 내에서는 기운이 없고 회사 밖에선 활기찬 상태를 '사내우울'이라고 개념화하여 일반적인 '우울'증과 구별하였다. 사내우울은 우울감과 다르게 자신감 상실, 비탄, 절망같은 자기부정의 감정이 거의 나타나지 않는다. 그러나 우울할 때 필수적으로 나타나는 주의력, 집중력, 결단력 등의 저하와 가벼운 정도의 우울한 마음이 일하는 동안에만, 즉 회사에 있는 동안에만 나타나는 상태이다. 荒井千曉 (2008)의 회사우울도 비슷한 개념이다.

13) 이에 대한 경험적 연구결과는 매우 많아, 학술 DB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으므로, 일일이 표기하지 않는다.

2016), 부당과업(Illegitimate tasks)(Eatough et al., 2016), 노동관련 지루함(van Hooff and van Hooff, 2016), 죄의식(Gil-Monte, 2011) 등이다. 회사밖관련 우울감요인은 심리사회적 요소(Wang and Schmitz, 2011) 등이다.

경험적 선행연구들에서 이러한 요인들이 시간흐름에 따라 미치는 영향 그리고 복수의 요인들을 동시에 포함한 복수요인모델(multivariate model)로 연구한 것은 별로 없다.(Pemberton and Fuller Tyszkiewicz, 2016) 따라서 본 연구와 같이 복수요인모델(multivariate model)로 연구하는 것이 요구된다.

III. 이주노동자의 동향

1. 이주노동자의 일반적 동향

한국에서는 자본주의의 발전단계와 자본축적과정에 조용하여 이주노동자제도로써 1991년부터 산업연수생제도를 그리고 2004년부터 고용허가제(Employment Permit System: EPS)를 시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에서는 59,134개(2021년 3월) 사업장에서 취업하고 있는 이주노동자가 비정규노동자로서 유연축적체제의 필수요소가 되었다.

고용허가제는 장기체류로 이어질 가능성을 막고 단기순환기조를 유지하려는 제도로써 사업장 이동제한, 숙식비공제지침 등과 근로기준법 63조 등을 통해 저임금을 유지하고 이주노동자를 통제하면서 인권침해와 부작용을 특히 전체 이주민 중 19.7%(2020년말 39만 2000여명)인 미등록이주노동자들에게 많이 발생시켜 왔다.

코로나19가 발생한 2020년부터 이주노동자 출국 규모는 급증하고 도입 규모는 급감하여 국내에 체류하는 이주노동자는 2019년 27만여명에서 22만여명(2021년 5월)으로 5만여명이 감소했다.

표 2. 고용허가제(비전문취업(E-9))관련 주요 국가별 체류현황(2021년 5월)(단위: 명)

구분	계	미얀마	캄보디아	네팔	베트남	인도네시아	태국	필리핀	스리랑카	우즈베크	방글라데시	몽골	파키스탄	동티모르	키르키스	라오스
2020말	236,950	22,149	33,219	31,431	31,406	24,184	22,176	21,420	18,439	10,786	8,225	5,058	2,623	2,060	852	281
2021/5	220,605	20,747	32,824	28,745	28,530	21,998	21,179	20,011	16,709	9,856	7,469	4,617	2,382	2,022	757	257

출처: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통계월보

표 3. 고용허가제(비전문취업(E-9))관련 도입 추이

연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년 1~5월	'21년 1~5월	전년대비
도입자 수	140,072	145,174	151,116	41,992	37,033	4,744	-87.2%

출처: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통계월보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이주노동자들은 장기불황속에서 코로나19로부터 타격을 입었다.¹⁴⁾ 코로나19 발생 이후 정부는 국가인권위원회까지 공적 마스크 배분정책, 재난지원금 지급과 전수조사 행정명령 등 여러 분야에서 차별하려고 했다. 이주노동자들만의 코로나검사장면은 감염된 이주노동자에 대한 과도한 비난과 이주민에 대한 혐오를 야기하기도 했다.

14) 이하의 서술은 최근의 내용까지 포함하고 있는 신문기사를 정리한 것으로 출처를 일일이 표기하지 않는다.

이주노동자들은 곤란을 많이 겪었다. 체류자격 갱신이나 변경, 신청을 위해 출국을 한 이후 재입국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 국내에 발이 묶이기도 하고 국제선 항공편이 운항하지 않거나 부정기적이고 소규모로 운항하여 입출국이 어려워 곤란을 겪기도 했다.

이종욱글로벌의학센터(2021)에 따르면,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취업 중인 이주노동자의 44.9%는 '근무시간의 유연한 조정', 31.7%는 '임금삭감', 16.9%는 '무급휴가 받음', 5.1%는 '해고됨'을 응답했다. 종합적으로 31.6%가 주수입원을 잃은 경험이 있고 65.3%는 월평균 소득이 줄었다(평균 76.8만원)고 응답했다.

감염확산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 '3밀'(밀집·밀접·밀폐)을 피할 수 없는 공장과 숙소에서 집단생활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 사업주는 방역에 필요한 지원은 하지 않으면서 이주노동자에게 고압적으로 위생수칙을 지키라고만 하고 코로나19 감염자를 막기 위해 사적인 만남을 제한하고자 자유로운 외출까지 제한하여 제대로 코로나 방역이 이루어지지 않는 숙소에서 모여 있어야 했다. 이러한 일터에서의 규제는 이주노동자를 고립시켰다. 이주노동자들은 코로나19 정보를 알고 있고 이해도도 높았으나, 실직 등으로 주소지 이전이 있으면 연락처가 없어서 백신 접종 안내 등에서 배제되거나 소외되기도 했다. 이러한 정부와 사업주의 고압적 통제뿐만 아니라 고용 불안정 나아가 사회의 차별적 시선으로 인해 이주노동자들은 스트레스를 매우 심각하게 겪었다.

종합적으로 한국인의 강한 배타의식과 경계의식에 기반한 문화적 배타주의(egocentrism)는 이주노동자의 삶을 고달프게 하고 계토를 형성하며 살게 해왔다. 근본적으로 지구적 자본주의와 연관되어 있는 인종주의(임월산, 2011)에 대응하고자 UN이 1990년 이주노동자권리협약을 채택하고 인권개선 등 이주의 구조적 조건의 개선을 추진해 오고 있는 가운데 지금까지 이주노동자에 대한 지원역할을 수행할 여력이 별로 없는 한국의 사용자들이 노력을 별로 하지 않는 가운데, 정부나 시민단체들의 사회적 지원은 다문화정책이나 이주민인권활동으로 좀 이루어지고 있다. 대부분은 Berry (2003)의 통합을 형성하는 2개 차원 중 동화노력일 뿐 모국문화유지노력은 별로 없다.(안가은, 2019; 윤영삼, 2015; 윤영삼·Trinh Thi Hue·손현일, 2017; 조지영, 2013)

한국정부는 증가하는 이주민을 위해 주로 결혼이주여성의 문제에 초점을 맞춘 다문화정책 등을 2005년부터 다양하게 실시하고 있지만, 이주노동자만을 위한 정책은 미봉책을 넘어서지 못하는 미약한 수준이다. 그 결과 한국의 이주노동자들이 처한 인권현실 특히 노동권의 현실은 익히 알려진 바와 같이 열악한 실정이다. 이주노동자의 구체적인 인권 개선에 관한 논의는 거의 전무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한준성, 2017) 이주노동자에게 적용될 수 있는 제도도 산업재해관련 제도 등이 가동될 뿐 근본적 사항인 체류나 영주에 관한 제도는 전무하다. 이주민관련 관점으로 '다문화주의'(multiculturalism)와 '문화적 다원주의'(cultural pluralism)가 있으나(임운택, 2013) 후자의 관점에서 다양성과 공정성이 보편적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한국의 실상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의 이주노동자들의 정신건강에 관한 연구들이 좀 이루어져 온 편이다. 선행연구결과를 종합하면, 정신건강의 주요요인은 문화부적응, 언어차이갈등, 차별스트레스, 작업환경이었으며, 전반적으로 우울, 불안 및 적응장애가 약간 있었다. 양옥경·박향경·손가현(2010)에 의하면, 여성, 미혼, 월평균 수입의 적음, 한국체류기간의 길은 이주노동자에게서 더 그러하였으며, 정신건강상태(전체심도지수)가 치료를 요하는 비율은 13.4%이며 정신건강(전체심도지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문화적응스트레스 많음과 직장폭력경험이었다.

2. 이주노동자의 우울감관련 동향과 요인: 선행연구결과를 중심으로

한국에서의 이주노동자 우울감관련 사항을, 연구결과를 통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이선웅(2008)(우울 증상은 CES-D 번역판을 사용)에서 우울증상율은 비중국어이주노동자가 32.1%이었고 미등록이주노동자는 32.8%이었다. 양옥경·박향경·손가현(2010)에서 우울로 인해 치료를 요하는 비율은 8%이었고 여성에게 그리고 한국체류기간이 길수록 높았다. 김지경(2012)에서 우울증상율은 63.9%이었다. 전해정(2015)에서 우울 평균점수는 15.33±7.32점이었다.

우울증상에 미치는 요인의 경우 김지경(2012)은 직무스트레스 그리고 이선웅(2008)은 직무스트레스 하위영역 중 물리환경, 직무요구 및 직장문화이었다고 제시하였다. 양옥경·박향경·손가현(2010)은 문화적

우스트레스와 직장폭력경험이었다고 제시하였다. 정선영·오영림·배이진(2013)은 일상의 신체적·정신적 어려움 특히 의사소통 어려움과 인격모독이었다고 제시하였다. 전해정(2015)은 문화적응스트레스, 종교, 모국인친구 수, 임금, 주평균근무시간과 한국어 능력이었다고 제시하였다. 최영미·송영호(2018)는 차별인식을 제시하였다. 안가은(2019)은 문화적응군집들 중 주변화군집은 분리군집과 통합군집에 비해 우울 수준이 유의하게 높았고 주변화군집은 통합군집에 비해 차별지각이 유의하게 높았다고 제시하였다. 조정배(2020)는 문화적응 스트레스이었다고 제시하였다. Lindert et al.(2009)는 재무적 긴장 즉 돈걱정을 암시하였다.

기존의 경험적 연구에서 제시된 우울요인을 종합하면 직무스트레스(물리환경, 직무요구 및 직장문화), 문화적응스트레스, 직장폭력경험, 일상의 신체적·정신적 어려움(의사소통 어려움과 인격모독), 모국인친구 수, 월급, 주평균근무시간, 한국어 능력, 차별인식, 문화적응유형이다.¹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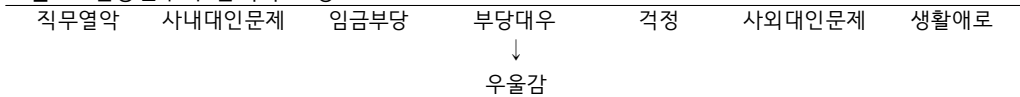
그러나 기존의 경험적 연구가 적다는 점에서 경험적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은 요인에 대해서도 탐색적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한국인노동자나 이주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경험적 연구가 제시한 요인으로서 특히 우울 증상의 단기(near-future)발생/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Theorell et al., 2015)으로서 경험적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은 요인으로는 회사내요인으로서 상사갈등, 동료갈등, 대인고통(괴롭힘 등), 인권침해, 임금부당, 부당대우를 들 수 있고, 회사외요인으로는 숙소열악, 건강걱정, 돈걱정, 타인고민(주변사람들(모국인 등/한국인)과 갈등, 회사외에서 괴롭힘을 당함), 모국지향(향수와 모국가족적정), 범위반 등을 들 수 있다.(시민건강연구소, 2021; 이주민과 함께, 2017; 이주와 인권연구소, 2018) 이들을 포함한 실증연구를 수행할 필요가 있다.

IV. 실증연구

1. 연구모형 및 가설

본 연구의 목적은 이주노동자의 우울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규명하는 것이다. 이를 위한 실증연구모형은 기존연구가 거의 없는 편이라서 탐색적인 성격의 모형인데, 우울감의 요인에 관한 이론적 관점/모델들 중 회사내 및 회사밖 실태와 관련된 요인들을 논의한 Karasek(1990)과 Willner(2017)의 이론적 설명에 입각하여 '선행실증연구들에서 제시된 변수들'과 '탐색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는 변수들'을 포함한 복수요인모형¹⁶⁾로서 <그림 1>과 같이 설정하였다.

그림 1. 실증연구의 탐색적 모형



연구가설에 있어서 선행실증연구결과로서 직무열악의 경우 이선웅(2008)과 김지경(2012)에서 직무스트레스 특히 직무요구와 물리환경이 유의적인 정(+)의 영향을 미쳤다는 점, 사내대인문제의 경우 Theorell et al.(2015)에서 상사갈등, 동료갈등, 대인고통, 인권침해 그리고 양옥경·박향경·손가현(2010)에서 직장

15) 소통어려움과 인격모독의 경우를 제외하고 '사회적 지지'는 우울에 미치는 효과가 없다고 정선영·오영림·배이진(2013)과 안가은(2019)은 제시하였다.

16) 선행연구들에서 제시된 우울감요인들 중 이주노동자들에게 별로 발생하지 않는다고 알려지거나 차이가 별로 없을 것으로 판단한 변수들은 제외하였다. 제외된 변수는 범위반, 농업에서의 문제이고 미안마와 비슷한 실정인 주거열악, 함께 일하는 한국노동자와 비슷한 노동시간이다. 한편 필자 중 미안마인이 있어서 미안마출신 이주노동자를 대상으로 하는데, 미안마당국이 여성에게는 불허하기 때문에 고용허가제에 따른 미안마출신 여성이주노동자는 없다. 따라서 여성이주노동자에 해당하는 변수는 제외하였다.

폭력경험이 유의적인 정(+)¹⁷의 영향을 미쳤다는 점, 임금부당의 경우 Theorell et al.(2015)과 전해정(2015)에서 임금부당이 유의적인 정(+)¹⁷의 영향을 미쳤다는 점, 부당대우의 경우 Theorell et al.(2015)과 최영미·송영호(2018)에서 특히 차별인식이 유의적인 정(+)¹⁷의 영향을 미쳤다는 점, 사외대인문제의 경우 정선영·오영림·배이진(2013)에서 인격모독을 그리고 최영미·송영호(2018)에서 차별인식이 유의적인 정(+)¹⁷의 영향을 미쳤다는 점, 생활애로의 경우 전해정(2015), 안가은(2019) 및 조정배(2020)에서 문화적응(스트레스)이 그리고 정선영·오영림·배이진(2013)에서 일상의 신체적·정신적 어려움 특히 의사소통 어려움이 유의적인 정(+)¹⁷의 영향을 미쳤다는 점 그리고 Lindert et al.(2009)가 돈걱정이 영향을 미친다고 암시하였다는 점을 토대로 다음의 가설들을 설정하였다.

- H1 직무열악은 우울감에 정(+)¹⁷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 H2 사내대인문제는 우울감에 정(+)¹⁷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 H3 임금부당은 우울감에 정(+)¹⁷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 H4 부당대우는 우울감에 정(+)¹⁷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 H5 걱정은 우울감에 정(+)¹⁷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 H6 사외대인문제는 우울감에 정(+)¹⁷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 H7 생활애로는 우울감에 정(+)¹⁷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2. 연구방법

1) 변수의 조작적 정의 및 측정

선행변수의 조작적 정의(‘지난 1달 동안’)와 우울감의 조작적 정의(‘지난 1주일 동안’)가 <표 4>이다.

표 4. 조작적 정의(미얀마 남성 이주노동자의 경우)

변수	하위변수	조작적 정의	변수	하위변수	조작적 정의
직무열악	작업환경	작업환경이 열악한 정도	걱정	건강걱정	건강을 걱정한 정도
	직무요구	노동강도가 높은 정도		금전걱정	부채가 과도한 정도
사내 대인문제	대인갈등	상사와 갈등의 정도	사외 대인문제	대인갈등	주변인과 갈등의 정도
	대인고통	동료와 갈등의 정도		대인고통	괴롭힘을 당한 정도
임금부당	임금부당	공제비용이 과도한 정도	생활애로	문화	한국어가 낮은 정도
		체불(7일 이상)경험 정도		부적응	사외생활의 불편 정도
부당대우	대우부당 인권침해	부당징계행위를 당한 정도	우울감	모국지향	모국향수·가족근심의 정도
		차별을 경험한 정도		차별경험	차별을 경험한 정도
					우울감정, 대인고립감, 부정감정, 신체둔화감의 정도

변수의 측정에 있어서 우울감의 경우 측정척도가 CES-D(Center for Epidemiologic Studies-Depression) 등 서구에서 많이 제시되었으며, 우울감연구 특히 우울감척도도 문화적 차이가 고려되어야 한다는 점(Esteban et al., 2020)에서 한국인에 맞는 측정척도도 많이 개발되었다. 미얀마인에 맞는 측정척도가 없는 실정에서 노동자 특히 이주노동자가 설문응답을 하기 쉬운 축약된 측정척도로서 한국인과의 비교를 할 수 있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서울대 사회복지연구소가 개발하여 한국인에 대해 매년 실시되고 있는 한국복지실태조사(여유진 외, 2020)¹⁷의 설문문항을 사용하였다.

17) 1주일간의 우울 정도를 11개 문항(CESD-11) 각각에 대해 ‘극히 드물다’(일주일에 1일 미만), ‘가끔 있었다’(일주일에 1~2일), ‘종종

선행변수들의 경우, 변수가 많고 이주노동자들이 응답하기 용이함을 고려하여, 변수당 2~3개의 문항을 기존 경험적 연구에서 사용한 문항에서 선택하고 기존의 경험적 연구에 없는 문항은 필자들이 개발하였는데 이주노동자에게 중요하다고 연구들에서 제시된 실태와 상황을 참고하여 설문문항을 작성하였다.¹⁸⁾ 또한 본 연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통제변수로서 연령, 교육수준, 한국체류기간을 포함시켰다.

측정에 있어서 선행변수문항은 이주노동자들이 보다 분석적으로 응답하도록 7점 척도로 구성하였고 우울감문항은, 선행변수문항과 일관된 척도를 사용하기 위해, 한국복지실태조사(여유진 외, 2020)가 사용한 설문문항의 척도는 '지난 1주일간 얼마나 자주 느꼈는가'에 관한 4점 척도이나 본 연구에서는 7점 척도로 변형하여 구성하였다. 설문지는 기본적으로 한국어로 구성된 후, 미얀마인인 필자가 미얀마어로 번역하고 번역의 정확성과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사전테스트를 한 설문지를 사용하였다.

2) 조사방법과 통계분석방법

설문조사의 표본은 부산-경남지역에서, 현재 불법체류자와 실업자가 아닌, 고용허가제로 제조업에 취업한 미얀마 이주노동자들이다.

설문조사는 2021년 6월에 미얀마 이주노동자가 모이는 장소를 직접 방문하거나 인맥을 통해 배포하고 수집하였다. 총 140부를 배포하여 130부를 회수(회수율 92.9%)하였고, 작성이 부실한 설문지를 제외하여 총 128부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표본의 분포는 <표 5>에서 보듯이, 표본의 구성비를 모집단의 구성비와 비교할 수 없지만, 미혼, 전문대졸 이상이 다수이므로 일반적으로 알려진 이주노동자의 구성비와 크게 다르지는 않다고 판단된다.

표 5. 표본의 인구통계적 특성

	구분	빈도	비율(%)		구분	빈도	비율(%)
연령	30세 이하	31	24.2	한국 체류기간	1년 미만	4	3.1
	31세~40세	90	70.3		2년 이하	30	23.4
	41세 이상	7	5.5		2년~3년 이하	66	51.6
	고졸 미만	10	7.8		3년 이상	28	21.9
학력	고졸	86	67.2	합계		128	100.0
	대졸	32	25.0				

통계분석방법으로는 SPSS 22.0을 이용하여 기술통계분석, 요인분석 및 상관분석을 실시한 후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3) 변수의 타당도 및 신뢰도 분석결과

가설을 검증하기 전에 변수의 타당성과 신뢰성을 분석하였다. 측정도구가 해당 구성개념을 얼마나 타당하게 반영하는가를 검증하기 위하여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요인고유치가 1.0 이상인 요인들을 대상으로 하고 요인적재값이 0.6 이상을 기준으로 추출하였다. 구성된 문항들의 내적 일관성 즉 신뢰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Cronbach's α 계수를 사용하였는데, Cronbach's α 계수가 0.6 이상이면 수용 가능성이 있다.

있었다'(일주일 3~4일), '대부분 그랬다'(일주일 5일 이상)라는 척도로 측정한 후 0, 1, 2, 3으로 재점수화하여 우울 총점을 계산한다. 이 우울 총점에 11분의 20을 곱한 점수(만점은 60점임)가 높을수록 우울의 수준이 높으며, 계산된 값이 16보다 높으면 우울증을 의심할 수 있다고 한다. 2020년 한국의 전체 가구원의 우울 정도는 평균 5.4점(저소득 가구원은 10.4점, 일반 가구원은 4.3점)(중위는 1.8점, 7.3점, 1.8점)이었다. 본 연구의 조사결과와 비교하기 위해 각 하위 문항의 응답을 1, 2, 3, 4점으로 재점수화하고 7점 척도로 환산한다면, 만점은 80점이고 계산된 값이 36보다 높으면 우울증을 의심할 수 있으며 2020년 한국의 전체 가구원의 우울 정도는 평균 25.4점(저소득 가구원은 31.4점, 일반 가구원은 25.3점)(중위는 21.8점, 27.3점, 21.8점)이다.

18) 탐색적 연구이어서 필자들이 개발한 문항들을 포함한 독립변수의 문항들을 [부록]에 제시하였다.

우울감의 경우 본 연구가 사용한 문항들은 공식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한국복지실태조사의 설문문항이고 요인적재값을 분석한 결과도 eigenvalue 1.136에서 1개 요인으로 나타나 타당성이 있으며 Cronbach's α 계수가 0.673으로 나타나 신뢰성이 수용가능하다.

선행변수들은 본 연구의 탐색적 성격으로 인해 변수가 15개에 달하고 변수당 1~3개의 문항(총 문항수 28개)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경험적 타당도가 낮으나 내용상 명확히 구분된다는 점에서 타당도를 분석하였다. (<표 6> 참조)

표 6. 선행변수문항들에 대한 요인분석결과

문항	생활애로	사내 대인문제	임금부당	부당대우	사외 대인문제	직무열악	걱정	Cronbach's α
생활애로1	.783							.693
생활애로2	.674							
생활애로3	.671							
생활애로4	.665							
생활애로5	.548							
사내대인문제1		.844						.731
사내대인문제2		.744						
사내대인문제3		.667						
사내대인문제4		.505						
임금부당1			.764					.774
임금부당2			.596					
부당대우1				.726				
부당대우2				.637				
부당대우3				.579				
부당대우4				.558				.628
부당대우5				.505				
사외대인문제1					.736			
사외대인문제2					.613			
직무열악1						.891		
직무열악2						.835		.844
걱정1							.816	
걱정2							.786	
걱정3							.595	.749
고유치	3.111	2.835	2.527	2.193	2.022	1.666	1.436	
설명분산(%)	11.521	10.499	9.361	8.123	7.489	6.171	5.759	
누적분산(%)	11.521	22.020	31.381	39.504	46.993	53.164	58.923	

3. 기술통계분석결과

변수들의 기술통계분석결과와 상관분석결과는 <표 7>과 <표 8>이다.

표 7. 변수들의 기술통계분석결과(7점 척도)

변수	평균	표준편차	변수	평균	표준편차
직무열악	3.8	1.054	걱정	2.2	0.776
사내대인문제	2.8	0.848	사외대인문제	1.8	0.910
임금부당	2.3	0.881	생활애로	4.0	0.891
부당대우	3.0	0.902	우울감	2.1	0.754

미안마출신 이주노동자들의 우울감 평균은 2.1이다. 한국인의 우울감 평균이 한국복지실태조사결과(여유진 외, 2020)에서 2.2(주석 16) 참조이라는 점에서 한국인과 별 차이가 없다. 우울증을 의심할 수 있는 점수인 3.15 이상인 비율은 3.1%이었다.

미안마출신 이주노동자들이 주관적으로 평가한 선행변수의 경우 생활애로(4.0), 직무열악(3.8), 부당대우(3.0) 순으로 높았고, 사외대인문제(1.8)가 가장 낮았다. 임금부당(2.3)이 낮은 것은 제조업에서 임금부당이 낮은 점이 배경이라고 추정된다.

〈표 8〉에서 보듯이, 선행변수들 대부분은 우울감에 대해 $p < 0.05$ 에서 유의적인 상관관계를 갖고 있다. 선행변수들이 ‘지난 1달 동안의 경험’을 측정하는 것이고 우울감이 ‘지난 1주일 동안의 경험’을 측정하는 것이어서 선행변수들이 우울감보다 시간적으로 선행한 것이라는 점에서 유의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라고 추정할 수 있다.

표 8. 변수들의 상관관계분석결과

구분	1	2	3	4	5	6	7
1. 직무열악	1						
2. 사내대인문제	.262**	1					
3. 임금부당	.268**	.071	1				
4. 부당대우	.324**	.373**	.227**	1			
5. 걱정	.203*	.098	.036	.014	1		
6. 사외대인문제	.057	.360**	-.174*	.337**	.222*	1	
7. 생활애로	.179*	.102	.225*	.139	.236**	.248**	1
8. 우울감	.256*	.351**	.430**	.351**	.331**	.213*	.381**

주: * $p < 0.05$, ** $p < 0.01$

4. 가설검증결과

‘선행요인들은 우울감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는 가설(H1~7)을 검증하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가 〈표 9〉이다.

표 9. 우울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변수들에 대한 다중회귀분석결과

구분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베타	t	유의확률
	B	표준오차			
(상수)	.675	.438		1.540	.126
연령	-.210	.115	-.143	-1.826	.071
학력	.091	.099	.067	.919	.360
근속년수	-.061	.076	-.062	-.804	.423
직무열악	.017	.058	.025	.285	.776
사내대인문제	.136	.056	.235	2.039	.037
임금부당	.103	.043	.204	2.412	.018
부당대우	.118	.073	.163	1.753	.094
걱정	.109	.046	.223	1.875	.081
사외대인문제	.039	.059	.064	.660	.511
생활애로	.117	.049	.235	1.988	.046

주: 1. 종속변수: 우울감

2. 모형 요약: R2=.510, Modified R2=.502, F-Value=7.266, Significance=.000.

우울감에 유의적인 정(+)의 영향을 미치는 선행변수는 $p < 0.5$ 에서는 ‘사내대인문제’(H2), ‘임금부당’(H3), ‘생활애로’(H7)로 나타났다.

연구가 탐색적이라는 점과 관련하여 살펴본 $p < 1.0$ 에서는 ‘부당대우’(H4), ‘걱정’(H6)도 유의적인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무열악’과 ‘사외대인문제’는 $p < 1.0$ 에서도 유의적인 정(+)의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무스트레스(직무열악)과 모국인친구 수(사외대인문제)가 우울감에 유의적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결과와 다른 결과이다. ‘직무열악’은 상관관계분석결과에서 유의적 영향이 있다고 나타났다는 점에서 우울감의 예방과 완화를 위한 관리에서 고려되어야 할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아울러 탐색적으로 설정한 선행변수들의 영향을 보다 상세히 살펴보고자 선행변수들의 하위변수들(표 4) 참조)에 대한 다중회귀분석결과에서 ‘건강걱정’과 ‘문화부적응’은 $p < 0.5$ 에서 우울감에 유의적인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우울감의 예방과 완화를 위한 관리에서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V. 결론

본 연구의 목적은 이주노동자의 우울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탐색적인 복수요인모델의 실증연구를 통해 규명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실증연구로서 미얀마 제조업 남성이주노동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후 다중회귀분석 등을 통해 가설검증을 실시하였다.

실증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이주노동자의 우울감에 $p < 0.5$ 에서 유의적인 정(+)의 영향을 미치는 선행변수는 ‘사내대인문제’, ‘임금부당’, ‘생활애로’로 나타났다. 연구가 탐색적이라는 점과 관련하여 살펴본 $p < 1.0$ 에서는 ‘부당대우’와 ‘걱정’도 유의적인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기술통계분석결과로서 미얀마출신 남성이주노동자들의 우울감 평균은 2.1로 한국인과 별 차이가 없으며, 선행요인들이 낮은 편이었으나, 생활애로(4.0), 직무열악(3.8), 부당대우(3.0)가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었다.

본 연구의 실증분석결과는 이주노동자의 우울감을 완화시키거나 예방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 복수요인모델을 실증했다는 의의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를 토대로 기업이나 정부 나아가 사회가 이주노동자에 대한 관리방향을 설정하는 것과 관련된 의의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이주노동자의 우울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규명한 실증연구결과가 함의하는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관리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사내대인문제’, ‘임금부당’, ‘생활애로’, ‘부당대우’와 ‘걱정’이 높을수록 우울감이 높다는 결과는 이주노동자의 우울감을 낮추기 위해 이들을 낮추어야 함을 제시한다. 이상의 요인들은 기업과 이주노동자가 상생한다는 점에서 사용자의 관리문제이지만, ‘생활애로’와 ‘걱정’은 사회 특히 정부도 정책적 노력을 해야 할 문제이다. ‘사내대인문제’에 대해 사용자는 한국인과의 나아가 이주노동자와의 인간관계상 갈등의 존재여부와 정도를 정기적 상담 등을 통해 적극 파악하고 한국노동자의 폭언/폭력/괴롭힘의 예방을 위한 교육 등 완화하기 위해 ‘사회적 지지’(정선영·오영림·배이진, 2013)적 개입을 하고 인간관계 증진활동을 해야 할 것이다. ‘임금부당’에 대해 사용자는 임금에 관한 공제 등에 대해 상세히 내역을 제시해 투명성을 높여야 할 것이다. ‘부당대우’에 대해 징계시행시 절차공정성을 높이고 징계형량을 이주노동자의 모국직장문화를 고려하여 과도하지 않게 결정해야 할 것이다.(이주민과 함께, 2017) ‘생활애로’에 대해 정부는 한국어교육과 한국생활방식교육의 직접시행 또는 시행민간단체에 대한 적극 지원을 해야 할 것이다.¹⁹⁾ ‘걱정’에 대해 정부는 정신건강을 포함한 무료건강검진을 확대시행하고(이종욱글로벌의학센터, 2021) 사용자는 건강검진을 지원하고 걱정하는 건강문제를 완화할 수 있는 지원을 해야 할 것이다.(시민건강연구소, 2021) 나아가 금전/부채상태에 대해 상담 등을 통해 파악하고 조연이나 지원을 해야 할 것이다. 특히 우울감/우울증에 대해 정기적 검진을 실시해야 할 것이다. 둘째, 미얀마출신 이주노동자들이 주관적으로 평가한 우울감요인변수들이 평균 2.9로 낮으나, 생활애로(4.0), 직무열악(3.8), 부당대우

19) 다문화정책의 접근법을 잘못 설정해 왔던 정부의 이주노동자정책에 대한 시사점에 관해서는 윤영삼(2015)을 참조할 것.

(3.0)가 상대적으로 높으며, 5점(7점 척도) 이상의 비율이 하위변수들에서 직무열악은 18.8%, 부당대우는 26.8%, 문화부적응은 37.5%, 모국지향은 64.7%나 된다는 점에서 개선노력이 필요하다.

학문적 시사점을 들자면, 첫째, 우울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해 복수요인모형을 설정하고 탐색적 연구를 수행하였는데 우울감에 대해 대다수의 요인들의 상관계수가 유의적 영향을 미침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추가연구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특히 경험적 선행연구들에서 다루어지지 않은 요인들에 대한 체계적 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선행연구결과와 달리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은 선행변수들에 대해서는 노동조건을 통제하고 영향의 성격이 단기적임, 지체적임, 누적적임의 문제(Boini et al., 2020)를 분석해야 함을 시사한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첫째, 설문조사가 갖는 방법론적 한계 특히 동일측정방법의 한계가 있다. 둘째, 이주노동자를 부산경남지역의 제조업 미안마을출신에 한정된 표본이어서 일반화에 한계가 있다. 셋째, 영향요인변수들을 ‘지난 1달 동안의 경험’으로 측정하고 우울감을 ‘지난 1주일 동안의 경험’으로 측정한 것이어서 영향요인들이 우울감보다 시간적으로 선행한 것을 측정하였지만, 횡단적 연구로서 변수들 간의 인과적 방향이 확실하다고 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연구를 통하여 얻게 된 주요 경험에 근거해 향후연구의 방향을 제언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해 향후연구는 지역과 국적을 넓히면서 질적 조사방법을 병행할 필요가 있다. 둘째, 이주노동자연구가 대체로 남성이주노동자를 대상으로 하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점에서 여성이주노동자를 대상으로 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셋째, 변수들 간의 인과적 방향이 불확실한 횡단적 연구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종단적 연구가 필요하다. 넷째, 우울감에 대한 영향요인의 영향의 성격이 단기적임, 지체적임, 누적적임(Boini et al., 2020)의 문제를 체계적으로 분석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다섯째, 코로나19와 관련된 우울감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부록] 독립변수의 설문문항

직무열악	열악한 작업환경에서 일을 해 왔다. 회사에서 지칠 정도로 일해 왔다. 한국인상사와 상당한 갈등을 겪어 왔다.
사내대인문제	동료와 상당한 갈등을 겪어 왔다. 회사에서 폭언이나 폭력을 당한 적이 있다. 회사에서 상사나 동료로부터 괴롭힘을 당해 왔다.
임금부당	임금을 부당하게 적게 받은 적이 있다. 임금을 7일 이상 뒤늦게 받은 적이 있다. 부당한 징계를 받은 적이 있다.
부당대우	사장에게 신분증이나 통장을 압류당한 적이 있다. 회사에서 외출을 통제(금지 포함)당한 적이 있다. 사업장의 변경을 요구했으나 사장이 거부한 적이 있다. 회사에서 한국인에 비해 차별을 겪은 적이 있다.
걱정	건강이 나빠질 것을 걱정해 왔다. 아프거나 다쳐서 많은 치료비를 낸 적이 있다. 많은 부채를 갖고 있어 왔다.
사외대인문제	회사밖에서 주변사람(한국인/모국인 등)과 갈등을 겪어 왔다. 회사밖에서 괴롭힘을 당해 왔다. 한국사람과 이야기하는데 어려움이 많았다. 한국생활방식에 적응을 못해 회사밖생활에 불편함이 많았다.
생활애로	미얀마생활로 돌아가고 싶었다. 미얀마에 있는 가족을 걱정해 왔다. 회사밖에서 한국인에 비해 차별을 겪은 적이 있다.

References

- 김규상(2010), “이주노동자의 건강상태와 건강영향”, *산업안전보건연구동향*, 32, 44-49
- 김용규(2010), “국내 이주노동자의 정신건강 현황 및 과제”, *정신건강정책포럼*, 4(1), 38-53
- 김종주·이만우(2000), “The Psychodynamics of Depression: on the psycho-analysis of the ‘Hahn’(恨) as a depressive state in Koreans”, 한국현대정신분석학회 발표대회논문집
- 김지경(2012), *제조업 남성 이주노동자의 직무스트레스와 수면의 질이 우울수준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인제대
- 노진섭(2021), “한국, OECD 국가 중 우울증·자살률 1위”, *시사저널*, 1653호, 50-51
- 민성길(2009), *화병연구*
- 박시성(2020), “육망의 윤리와 우울”, *KNOTS*, 1, 43-73
- 반기웅(2021), “코로나 블루, 심리방역도 시급하다”, *주간경향* 1411호, 24-25
- 시민건강연구소(2021), *이주민 건강권 실태와 의료보장제도 개선방안 연구*, 연구보고서
- 심광현(2014), “재난자본주의와 감정의 정치학: 불황과 우울증의 변증법”, 심광현, *파스와 마음의 정치학*, 547-585
- 안가은(2019), *국내이주노동자의 문화적응 유형별 우울, 차별 사회적 지지* (석사학위논문), 이화여대
- 양옥경·박향경·손가현(2010), “이주노동자의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연구”, *정신보건과 사회사업*, 35(0), 141-175
- 여유진 외(2020), *2020년 한국복지패널 기초분석 보고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윤영삼(2015), “이주노동자의 심리적 안녕에 영향을 미치는 모국문화유지행동”, *인적자원관리연구*, 22(4), 165-186
- 윤영삼·Trinh Thi Hue·손현일(2017), “이주노동자의 모국문화유지행동이 직무태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산업정보학회논문지*, 22(3), 77-94
- 이선웅(2008), 경기지역 일부 이주노동자들의 우울 증상들과 관련위험요인 (석사학위논문), 서울대
- 이종욱글로벌의학센터(2021), *국내 이주노동자 코로나19 의료정보 문해력 및 의료접근성 연구조사*
- 이주민과 함께(2017), *이주민권가이드라인 재구축을 위한 연구*, 국가인권위원회 연구용역보고서
- 이주와 인권연구소(2018), *2018 이주노동자의 노동조건과 주거환경 실태조사*
- 임운택(2013), “이주노동자의 인권보호를 위한 이론적 논의와 국제적 실천의 시사점”, *산업노동연구*, 19(2), 33-66
- 임월산(2011), “신자유주의적 자본주의, 인종주의 그리고 한국의 이주노동자”, *사회운동*, 101, 87-110
- 전혜정(2015), *베트남 이주노동자의 문화적응스트레스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동아대
- 정선영·오영림·배이진(2013), “사회적 관계망, 일상적 어려움, 사회적 지지가 외국인 근로자의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조사연구*, 34, 1-35
- 제용진·유승호(1997), “정신병적 우울증의 신경심리학적 양상: 비정신병적 우울증 및 정신분열병과의 비교”, *생물치료정신의학*, 3(1), 128-137
- 조정배(2020), “외국인 노동자의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회복탄력성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한국케어매니지먼트 연구*, 36, 283-300
- 조지영(2013), *누가 다문화사회를 노래하는가?* (석사학위논문), 연세대
- 川上真史·小杉正太郎(2004), *「うつ」になる人たち—ストレス社会で生き残る?き方とは*(김하나 옮김), *나는 왜 출근만 하면 우울할까?*
- 통계청(2020), *보도자료: 2020년 이민자 체류실태 및 고용조사 결과*
- 한준성(2017), *한국의 이주노동정치* (박사학위논문), 서울대
- 荒井千曠(2008), *社員が“うつ”になったとき*(정정일 옮김, *회사우울증*)
- Berry, J. (2003), “Conceptual approaches to acculturation”, In J. Chen, P. Baiis-Organista and G. Martin(eds.), *Acculturation*, 3-37
- Blatt, S. (1998), “Contributions of psychoanalysis to the understanding and treatment of depression”, *Journal of the American Psychoanalytic Association*, 46(3), 723-752
- Boini, S., M. Kolopp, M. Grzebyk, G. Hédelin and D. Chouanière (2020), “Is the effect of work-related psychosocial exposure on depressive and anxiety disorders short-term, lagged or cumulative?”, *International Archives of Occupational & Environmental Health*, 93(1), 87-104.
- Clays, E., D. De Bacquer, F. Leynen, M. Kornitzer, F. Kittel and G. De Backer (2007), “Job stress and depression symptoms in middle-aged workers”, *Scandinavian Journal of Work, Environment & Health*,

33, 252-9.

- De Lange, A., T. Taris, M. Kompier, I. Houtman and P. Bongers (2004), "The relationships between work characteristics and mental health: examining normal, reversed and reciprocal relationships in a 4-wave study", *Work & Stress*, 18, 149-66.
- Eatough, E., L. Meier, I. Igic, A. Elfering, P. Spector and N. Semmer(2016), "You want me to do what? Two daily diary studies of illegitimate tasks and employee well-being", *Journal of Organizational Behavior*, 37(1), 108-127
- Esteban, V. et al. (2020), "Cultural considerations in treating depression", in L. Benuto, F. Gonzalez and J. Singer(eds.), *Handbook of Cultural Factors in Behavioral Health*, 309-321
- Fandino-Losada, A., Y. Forsell and I. Lundberg (2013), "Demands, skill discretion, decision authority and social climate at work as determinants of major depression in a 3-year follow-up study", *International Archive of Occupational and Environmental Health*, 86, 591-605.
- Gil-Monte, P. (2011), "The influence of guilt on the relationship between burnout and depression", *European Psychologist*, 17(3), 231-236
- Gotlib, I. and J. Joormann (2010), "Cognition and depression: current status and future directions", *Annual review of clinical psychology*, 27(6), 285-312.
- Hamon, R. and J. Gaspard (2020), "실존의 고통, 고양된 멜랑콜리와 사회적 연대", *KNOTS*, 1, 74-95
- Karasek, R. (1990), "Lower health risk with increased job control among white collar workers", *Journal of Organizational Behavior*, 11(3), 171-185.
- Kim, H., S. Park, K. Min and K. Yoon (2009), "Depressive symptoms and self-reported occupational injury in small and medium-sized companies", *International Archives of Occupational & Environmental Health*, 82(6), 715-721.
- Lassus, L., S. Lopez and V. Roscigno(2015), "Aging workers and the experience of job loss", *Research in Social Stratification and Mobility*, 41(1), 81-91
- Lindert, J. et al. (2009), "Depression and anxiety in labor migrants and refugees: A systematic review and meta-analysis", *Social Science & Medicine*, 69(2), 246-257
- Magnusson, H. et al. (2009), "Psychosocial working conditions and depressive symptoms among Swedish employees", *International Archive of Occupational and Environmental Health*, 82, 951-60.
- Maslow, A. (1967), "Neurosis as a failure of personal growth", *Humanitas*, 3, 153-169.
- Netterström, B., B. Conrad, P. Fink, O. Olsen, R. Rugulies and S. Stansfeld (2008), "The relation between work-related psychosocial factors and the development of depression", *Epidemiologic Reviews*, 30, 118-32
- Olive, D. (2020), "[인터뷰] 우울증과 정신분석적 입장에 관하여", *KNOTS*, 1, 115-129
- Pemberton, R. and M. Fuller Tyszkiewicz (2016), "Factors contributing to depressive mood states in everyday life: A systematic review", *Journal of Affective Disorders*, 200, 103-110
- Priesemuth, M. and R. Taylor (2016), "The more I want, the less I have left to give", *Journal of Organizational Behavior*, 37(7), 967-982
- Rosenthal, D. (1963), "A suggested conceptual framework", In D. Rosenthal(ed.), *The Genian quadruplets*, 505-516
- Rost, K., H. Meng and S. Xu (2014), "Work productivity loss from depression: evidence from an employer survey", *BMC Health Services Research*, 14(1), 59-75.
- Shields, M. (2006), "Stress and depression in the employed population", *Health Reports*, 17, 11-29.
- Solomon, A.(2001), *The Noonday Demon(민승남 옮김, 한낮의 우울)*
- Stoetzer, U. et al. (2009), "Problematic interpersonal relationships at work and depression", *Journal of Occupational Health*, 51, 144-51.
- Taylor, M and M. Fink (2006), *Melancholia*
- Theorell, T. et al. (2015), "A systematic review including meta-analysis of work environment and depressive symptoms", *BMC Public Health*, 15, 738-751.

- van Hooff, M. and E. van Hooft (2016), "Work-related boredom and depressed mood from a daily perspective", *Work & Stress*, 30(3), 209-227
- Wang, J. and N. Schmitz (2011), "Does job strain interact with psychosocial factors outside of the workplace in relation to the risk of major depression?", *Social psychiatry and psychiatric epidemiology*, 46, 577-84.
- Warr, P. (1990), "The measurement of well-being and other aspects of mental health", *Journal of Occupational Psychology*, 63, 193-210.
- Wieclaw, J. et al. (2008), "Psychosocial working conditions and the risk of depression and anxiety disorders in the Danish workforce", *BMC Public Health*, 8, 280. <https://doi.org/10.1186/1471-2458-8-280>
- Willner, P. (2017), "The chronic mild stress(CMS) model of depression: History, evaluation and usage", *Neurobiology of Stress*, 6, 78-93
- Ylipaavalniemi, J. et al. (2005), "Psychosocial work characteristics and incidence of newly diagnosed depression", *Social Science and Medicine*, 61, 111-22.